

‘현대의 가정교육 내용’에 관한 척도 개발 연구

A Study of Developing the Scale on the Contents of Modern Home Education.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徐炳淑
박사과정 王錫旬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Prof. : Byong Sook, Seo
Doctoral Course : Seok Soon, Wa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요약과 논의 |
| II. 연구절차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실증연구의 결과 및 분석 | |

〈Abstract〉

This study aims at the extraction of what is universally to be taught in modern Korean Families and its scalization. That is, it attempts to provide the criterion by which we can determine what to teach children in the family, not in society or school.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ly reviews the preceeding studies on the subject. As a result of the review, we postulate the hypothetical structure consisting of 12 domains. Secdndly, we gather the parent's view on the topic by interviewing 192 parents of the students. On the basis of this study, we can construct the questionnaire(Likert scale; 5 point). After we conduct an extensive empirical research(518 parents) in order to generalize 179 items of the worked-out questionnaire. We apply factor analsis(principal axis factoring, oblique (promax) rotation) in the verification of the validity.

As the consequence, we select 87 items consisting, 15 factors, which explain 71% of common variance. We name the 15 educational factors extracted in the scale as follows ; Values & Sociality, Training for basic living habits, The maintenance of the culture life on the family, Religious life, Learning guide, Economic life, Patriotism, Independent living, Table manners, The management

of commodity, The preservation of family unity, Sex & a Friendship with the opposite sex, Esteem for a traditional way of life, Respect for the Old, Filial piety.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is the cronbach $\alpha = .96$ which turns out to be satisfactor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사회 체제의 변화로 인해 가정의 구조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가정이 수행해 오던 대내적·대외적 기능들이 크게 축소되고, 이에 근거하여 Zimmerman 등은 가정이라는 사회집단이 미래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했다(유영주, 19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인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발전되지 않고서는, 사회가 안정과 발전을 해 내갈 수 없다는 인식(Stinnett et.al, 1984)엔 변함이 없다. 즉 가정의 많은 내·외적 기능들이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점차 사회의 다른 기능 집단들에 대체되어 갔으나, 현대 가족에 중요하게 남아 있는 몇몇 기능들은 사회의 건전한 유지·발전에 여전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가족에 남아 있는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가족 및 사회학자들은 현대 가정의 기능 축소에 동의하고 있지만,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충원시키는 사회화 및 교육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만큼은 가정이 기초적이며 기능적이라는 점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물론 가정의 사회화 및 교육 기능도 그 수행의 비율로 따지자면 학교나 기타 다른 사회 기관에 이관되어진 부분이 분명 더 많다. 그러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의 기초 교육은 인성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기관의 교육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 최초의 교육 환경(김천일, 1973)으로서의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코메니우스·루소·프뢰벨·페스탈로찌와 같은 서구의 위대한 교육학자들 뿐만 아니라(방현덕, 1993), 孟母三遷之教의 교훈에서 보듯이 동양의 학

자들에게도 중요한 교육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핵가족화, 결손가정의 증대 그리고 가족 구성원간의 심리적 소외 증대 및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라는 구조적 변동의 와중에서 표류하고 있는 현대 사회(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1994)에서는 이러한 가정의 사회화 및 교육 기능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가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필요한 기능은 다른 어떤 기능보다도 가족의 사회화 및 교육 기능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송성자, 1989).

최근 한국 사회에서 연속적으로 발생된 반인륜적인 사건이나 인재(人災)로 인해 일어났던 각종 대형 참사들, 개인의 대형 축재 사건 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참된 가정교육의 부재 탓으로 돌리는 시각들은(강지원, 1995; 장현섭, 1995)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현실적인 지적들이라고 하겠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참된 가정교육의 존재는 일개인의 인격 형성은 물론이요, 건강한 가정의 형성, 나아가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관련이 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잘 통찰하고 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가족의 교육적 기능은 오히려 매우 약화되어(牧野カツコ, 1992), 교육적 측면에서 커다란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위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지적되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의 2가지로 의견들이 정리되고 있다. 첫째, 현대인의 삶에는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의 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가치관에 기준을 두고 자녀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결정 내리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즉 어떤 가치에 기준을 둔, 어떤 내용의 교육을 자녀에게 가르쳐야만 자녀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갈 것인지에 관해 모르는 것이다(김제은, 1993). 둘째, 아동의

개성 존중이나 이해에 중점을 둔 서구식의 아동관 및 민주 사회의 시민 교육이라는 새 교육관이 갖는 의미와 기준의 모호성에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해 자신감을 상실했다(손직수, 1988)는 점이다. 현대의 부모들은 어떤 방법(관대해야 하는가, 아니면 엄격해야 하는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지, 아니면 방임이나 무관심 상태로 그냥 두어야 하는지를 모르면서 가정교육에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 갔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현대 가정교육의 위기에 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최근 들어 전통 사회의 가정교육의 내용과 의의를 재조명하는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온 바 있다 (예를 들어 다산 정약용의 가정 교육관(지영숙, 1987)이나, 童蒙교재의 내용 분석(유점숙, 1991) 등등).

전통적 가치의 재평가는 매우 의의가 있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적인 가정교육 상의 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선행 연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내용의 결과들을 현대의 가정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것은 현대와 과거라는 시간 차이 때문이 아니라, 사회와 가정의 체제 및 구조 변화에 따라 똑같은 교육의 목표나 내용 그리고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한국사회의 가정교육에서는,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둔 어떤 내용(What)의 가정교육이, 어떤 방법(How)으로 가르쳐져야 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현대의 가정교육에서는 어떤 내용과 방법이(What과 How의 문제) 요구되는가를 분석해 내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둘째 목적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작성한 후 이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척도로 구성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첫째, 가정교육에 관한 문헌들이 제안한 현대

가정교육의 내용들을 분석한다. 둘째, 첫째 과정에서 분석된 결과에 근거하여 질문문항을 작성한 후, 대단위 실증 절차(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를 통해 일반화 시킬수 있는 척도로 제안한다.

2. 가정교육 및 내용의 개념

교육은 펼쳐지는 마당(場)에 따라서 그 유형을 달리하는 데, 보통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으로 분류한다(이계학, 1994). 이중 가정교육이란 「父兄·母子들의 의식적으로 행하는 가정에서의 교육」 또는 「가정의 환경·생활 상태 및 집안 어른들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녀나 弟·妹가 받는 언행·도덕·규율·습관·취미·성격·사교 따위의 영향과 교화」(남광우외 3인, 1969)를 의미한다. 즉 가정에서 부모가 주체가 되어 자녀에게 의식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뿐만 아니라, 부모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간에 자녀에게 Model이 됨으로써 子女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부모의 무의도적인 교육도 포함되는(지영숙, 1990) 광범위한 개념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가정교육의 개념을 「부모가 그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행하는 의도적·무의도적인 생활 교육」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한편 가정교육은 생활 교육이기 때문에 가정교육의 내용은 부모-자녀가 이루는 생활의 내용 그 자체가 된다. 여기서 내용(內容)이란,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사물이나 현상 등을 성립시키고 있는 실질(實質)을 의미하여, 어떤 일의 즐거리가 되는 것(동아출판사, 1995)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교육의 내용이란 「생활 교육의 형식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즐거리가 되는 것」 또는 「생활 교육의 형식인 가정교육을 성립시키는 實質」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가정교육의 내용’을 「의도적·무의도적인 생활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의 교육

1) 학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방법뿐 아니라, 실제 어떤 규범이 올바른 규범이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실제적인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 스스로가 가치 수립에 어려움을 느끼며, 어떤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3).

적 행위들을 계통적인 줄거리로 구조화시킨 개념」으로 규정짓는다.

II. 연구절차 및 연구방법

1. 연구절차

현대의 한국 가정에서 수행해야 할 가정교육의 내용을, 일반화시킬수 있는 척도로 개발해 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단계의 절차를 거쳤다.

(1) 제 1단계 - 가정교육 내용의 이론적인 가설적 구조 설정

많은 동·서양 학자들이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적으며 특히 내용 구조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대의 가정교육이 어떤 내용구조를 가져야 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될수 있으면 광범위한 사람들의 통합된 의견 수집을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선행 연구자들의 문헌을 고찰하기로 한다.

선행연구의 내용분석의 결과를 가정교육 내용의 이론적인 가설적 구조로 설정하기 위하여 -생활 교육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광범위하고 모호한 가정교육을, 보다 계통적인 방법으로 구조화시키기 위해-다음의 몇 가지 전제 사항 또는 준거를 두기로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교육의 내용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가정교육은 생활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즉 유아기와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의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 유형은 차이가 있으므로, 가정교육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녀의 성장 수준에 따라 부모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는데도 근거한다. 예를 들어, 발달적 견지에서 본다면 Erikson은 아동기란 이후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인지 기술 습득에 주력하는 시기로 발달의 주요 목표는 근면성의 성취에 있다

(Salkind, 1981)고 한 바 있다. 이렇듯 발달의 주요 성취 목표가 자녀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령에 따라 가정에서의 교육 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본고는 자녀의 연령을 중기 아동기(장휘숙, 1992)인 국민학교 4~6학년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중기 아동은 근면성의 성취에 그 발달의 목표가 있으나, Piaget의 인지적 견해로는 아직은 구체적 조작의 시기이다. 구체적 조작기관, 사물과 논리의 이해를 구체적인 사물이나 행동의 조작을 통해서만 이해할수 있는 연령을 의미한다(Salkind, 1981). 예를 들어 '자주성'이란 추상적 개념의 이해는,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행동으로 조작해야만 이해할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는 '가정교육의 내용'의 척도화를 시도하였으나,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자녀의 연령이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이라는 제한점 때문에, 그 문항은 보다 구체적 행동으로 기술된 방법적 기술이 혼합될 수밖에 없었다. 현대적 가정교육의 실천적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막연한 제시보다는 구체성을 띤 진술이 요구된다(손직수, 1988)고 했는데,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본고는 구체적 행동으로 그 내용을 구성했다.

둘째, 가정에서만 다루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정교육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김재은, 1989)는 전제를 달고, 이를 위해 가정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수행하는 대내적 기능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고찰했다. 최근의 한국 가족의 대내적 기능과 관련된 대단위 실증 조사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유영주, 1989), 성·애정, 친척 관계 유지, 정서적 지지 및 안식처, 자녀의 사회화 및 교육, 경제적, 종교 도덕적 기능이 라고 한다. 이들 기능이 가족 내에서 주로 부모의 주도로 수행되면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태도(인생관, 결혼관, 자녀관, 직업관 등)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6가지 기능을 중요한 준거로 사용했다.

셋째, 이들 내용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몇 가지 가치의 덕목에서 기준 하여야 하는 데 어떤 가치관이 현대 한국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에 대한 합의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역시 대단위 실증 조사(이원영 등, 1991, 1460명 대상)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덕목으로 제안된 18개의 덕목을 내용 구성의 준거로 사용했다. 그 18가지는 인내, 타인 입장 존중, 물질 만능 배제 정신, 근면, 등등이다. 이 연구 결과는 올바른 규범·행동을 기르기 위해 어떤 사회적 덕목을 더 우선적으로 키워 주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며 사회교육과의 연계성 확보라는 점에서 준거로 채택했다.

넷째, 일부 부모 교육용 프로그램에서 제안한 부모의 자녀 교육용 프로그램 내용도 하나의 준거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5)에서 펴낸 ‘자녀의 바른 행동의 길 다지기’란 프로그램에서는 3가지 영역으로 나눈 후, 각 영역에 해당하는 주요 덕목들을 구분하여, 부모의 자녀 지도의 준거틀로 제안한 바 있는 데 이러한 기준들도 사용했다. 이는 본 척도의 보다 실용적인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이유에서였다.

다섯 번째는 국민학교 및 중·고 생활기록부에서 생활 지도와 관련하여 구성한 행동 발달 평가 기준을 내용 구성의 준거로 사용했다. 이는 실제적인 교육 현장의 행동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 때문에 준거로 채택했다.

여섯 번째는 가정교육의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들이 제안한 영역 또는 내용들 및 가정교육 관련의 단행본들이 그들의 논고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내용 구성의 준거로 사용했다. 이는 선행 연구의 축적된 연구 결과를 존중하고 선행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여섯 가지의 준거 틀에 따라, 가정교육의 내용을 총 12개의 영역으로 구조화 했다. 이러한 이론적인 가설적 구조의 결과를 간단히 다음의 <표 1>로 제시한다.

(2) 제 2단계 - 의견수집과정(면접법)

문헌 고찰을 통해 구분된 가설적인 영역과 관련하여, 일반 학부모들이 현대의 한국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97명(남성 85명, 여성 112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95년 4월~5월의 두달간 개방형 질문지에 의한 면접법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질문지는 “현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가정교육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의 한 문항이며, 이에 대한 7가지 이상의 응답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면접에 의한 자료를 앞서 구분한 1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빈도 처리한 후, 문항 자작(自作)에 적극 반영했다.

이상의 제 1, 2단계의 과정을 거쳐 가설적인 12개 영역에 따른 185개 문항의 1차 예비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3) 제 3단계 및 4단계 - 문항작성 및 예비조사

제 3단계- 전문가의 견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가정학 전공 교수 2인과 가정학 박사 5인에게 작성된 185개 문항의 예비 질문지에 대한 문항 적합도와 안면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적합치 않거나, 중복된 문항을 삭제한 후 또 일부 내용의 수정이나 가감을 통해 다시 총 179개 문항의 2차 예비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제 4단계- ‘95년 6월 20일~6월 30일간 총 3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2차 예비 질문지에 의한 예비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을 거쳐 일반인들에게 내용 전달이 어려운 일부 문항이 손질되었으나 문항 수는 179개 문항으로 유지되었다.

(4) 제 5단계 - 대단위 실증조사

4단계를 통해 확정된 179개 문항에 대하여 실증 조사를 실시했다. 완성된 질문지의 모든 문항이 중요한 것일 수 있겠으나, 현 한국 사회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또는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그 중요도에 따라 평정케하는 자기보고식의 5점 Likert식 질문지를 완성했다. 5단계의 평정 척도는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하다고 평정한 문항엔 5점을,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평정한 문항엔 1점을 주어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를 점수화하였다. 또 통계 절차를 거쳐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했다.

(표 1) 가정교육의 가실적인 영역 분류 목록표(○는 각 연구자가 포함시킨 요소)

대영역	연구자 요소	현대 가정 교육 내용										전통 가정 교육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국가·사회권 교육	나라사랑(애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주의식활리주체의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법(질서·공중도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인임장존중(신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체 의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경(신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봉사(이웃사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생 및 가치관 교육	창조성(개선)							○	○																									
	정리/저구성							○																										
	양보																																	
	공정적사고																																	
	책임																																	
	겸손																																	
	공정/협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내(자제력)																																	
	명량성(감성)																																	
	종교교육	종교적 태도결정																																
종교생활지도																																		
생활기술교육	인행 예절																																	
	식사 예절																																	
	청결/건강																																	
	생활습관																																	

2.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국민학교 4·5·6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형이다. 가정교육의 내용 구성은 자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중기 아동기 자녀를 둔 학부형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시내 4개 국민학교 4~6학년의 1학급씩을 우선적으로 표집하였다.

질문지는 아버지용과 어머니용으로 구분하여 담임 선생님의 협조 하에 한 학생당 2부씩 배부하였다. 지역의 선정은 강북, 강동, 강서, 강남 지역의 1개교씩을 안배하여 지역이 고루 선정되도록 유의 표집하였다. 조사는 95년 7월 10일~15일까지 실시하였다. 어머니용, 아버지용의 총 1000부를 배부하였는데, 887부가 회수되었다. 어머니용과 아버지용 질문지 내용은 동일하나, 어머니용에는 조사 대상 가정 상황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되어, 구분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에서 어머니·아버지용 응답 글체가 같고, 응답 점수가 동일하여 배긴 것이나, 질문지 응답에 50%이상 누락이 있거나, 어머니용 기초 자료의 내용이 모두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여 518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일반적 가정 환경은 국민학생 자녀를 둔 핵가족 유형의 중류 계층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본 실증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핵가족 유형의 중류 계층이 제안한 가정 교육의 내용이라는 한계 사항이 있다. <표 2>는 조사 대상의 가정 상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의 요약이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했다. 문항 양호도는 χ^2 검증을 한 후, 그 지수로서 Cramer의 V 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했다. 또 이러한 문항 양호도 검사의 검증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 개별 문항과 척도 총점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척도의 타당도는 요인분석을, 척도의 신뢰도 검사는 Cronbach의 α 를 산출하여 검증했다. 이상의 모든 과

〈표 2〉 연구대상 및 가족의 특성

변 인	특 성	사례수	빈도	
연령	모	30세 이하	4	1.61
		31 - 35세	54	21.77
		36 - 40세	151	60.89
		41 - 45세	38	15.32
		46 - 50세	1	0.40
		50세 이상	0	0.00
	계	248	100.00	
	부	30세 이하	1	1.02
		31 - 35세	15	14.02
		36 - 40세	135	58.13
41 - 45세		74	22.76	
46 - 50세		13	2.85	
50세 이상		6	1.22	
계	244	100.00		
학력	모	국 졸	7	2.86
		중 졸	50	20.41
		고 졸	126	51.43
		대졸(전문대포함)	57	23.26
		대 학 원	5	2.04
		계	245	100.00
	부	국 졸	5	2.08
		중 졸	28	11.67
		고 졸	119	49.58
		대졸(전문대포함)	75	31.65
대 학 원		13	5.42	
계		240	100.00	
종교	모	기 독 교	72	28.46
		천 주 교	23	9.09
		불 교	70	27.67
		기 타	3	1.19
		무 교	85	33.60
		계	253	100.00
	부	기 독 교	56	21.88
		천 주 교	17	6.64
		불 교	70	27.34
		기 타	2	0.78
무 교		11	43.36	
계		256	100.00	
직업	모	단순 노동직	8	3.40
		서비스직 종사자	26	11.06
		상 업	44	18.72
		회사 사무직	11	4.68
		전문 기술직	9	3.83
		고위 관리직	3	1.28
		무 직	126	53.62
		기 타	8	3.40
	계	235	100.00	
	부	단순 노동직	5	2.12
		서비스직 종사자	37	15.68
		상 업	89	37.71
		회사 사무직	42	17.80
		전문 기술직	20	8.47
		고위 관리직	19	8.05
		무 직	15	6.36
기 타		9	3.81	
계	236	100.00		

〈표 2〉 계속

변 인	특 성	사 례 수	빈 도
소 득	100만원이하	98	18.9
	100-200만원	263	50.8
	201-300만원	94	18.1
	301만원-500만원	50	9.6
	500만원이상	13	2.5
	계	518	100.00
사 회 계 층	상	9	1.8
	중상	66	12.9
	중	297	57.9
	중하	129	25.1
	하	12	2.3
	계	513	100.00
가 족 형 태	핵가족(비동거)	463	89.9
	확대가족(동거)	52	10.1
	계	515	100.00
결 혼 연 수	10년 이하	55	10.6
	11 - 15년	401	77.4
	16 - 20년	57	11.0
	20년 이상	5	1.0
	계	518	100.00
가 훈	유	357	69.5
	무	157	30.5
	계	514	100.00
자 녀 의 성	남 아	252	48.7
	여 아	265	51.3
	계	517	100.00
자 녀 의 나이	9세	20	4.1
	10세	126	25.8
	11세	158	32.4
	12세	180	36.9
	13세	4	0.8
	계	488	100.00
자 녀 학 년	4학년	188	36.4
	5학년	164	31.8
	6학년	164	31.8
	계	516	100.00
자 녀 의 형 제 관 계	첫 째	232	45.1
	둘 째	61	11.9
	중 간	42	8.2
	막 내	179	34.8
	계	514	100.0

정은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III. 실증 연구의 결과 및 분석

1. 문항 양호도

본 척도는 5점 Likert 평정 척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응답 유무의 상대적 반응 비율이 기대하는 대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볼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문항 양호도를 분석했다. 그 방법으로 응답 총점 분포의 상·하위 25% 집단에 대한 χ^2 검증을 하고, 그 지수로써 Cramer의 V계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모든 문항의 χ^2 값이 유의하게($p < 0.01$) 차이가 있었으며, 모든 문항이 Ahman과 Glock(1967, 유영주·어은주 1995에서 재인용)이 만족스러운 별별도 기준으로 제시한 .25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판별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이 방법은 척도의 총점과 개별 문항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일정 수준의 상관계수를 가진 문항만을 양호한 문항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Guilford와 Fruchter(1973)가 제시한 .30~.80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김순옥, 1988 재인용)를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위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문항은 총 4개(67,84,90,118번 문항)로 나타났다(〈표 3〉 참조).

2. 타당도

척도 구성의 타당성은 문항 양호도 검증을 통해 기준 안의 것(본 연구에서는 .30~.80)만을 골라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해 볼 수 있다.(홍두승, 1987)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확인한 가설적인 가정교육 내용 영역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인분석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실시하였다(표 4). 가정교육의 각 영역들은 이론상 상관관계가 깊고, 통계적 요인간 상관행렬표(표 5 참조)를 보더라도 요인간 상관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각회전(Promax Rotation)을 적용하였다. 한편 요인의 수 결정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적

〈표 3〉 척도문항내용 및 χ^2 , Cramer V, 상관관계 결과표

(◎ 표시된 문항은 요인분석후 최종선택된 문항을 의미)

문항	문항내용	χ^2	Cramer V	상관관계
◎1	웃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하도록 가르친다.	46.641	0.424	0.370
◎2	웃어른에게는 존대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50.905	0.443	0.327
3	어른들이 말씀 나누실때는 끼어들지 못하도록 가르친다.	55.662	0.463	0.330
◎4	웃어른에게 공손히 응대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86.241	0.578	0.430
5	손님이 오셨을때 조용히 하며, 때를 쓰지 못하도록 한다.	73.530	0.533	0.441
◎6	손님이 오시거나, 가실 때에는 인사를 하도록 한다.	63.447	0.497	0.364
7	손님이 오시면 간단한 음식나르기 등의 접대를 맡긴다.	59.262	0.478	0.379
8	상스럽거나, 험한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70.163	0.523	0.430
9	조용하고 낮은 말씨를 익히도록 한다.	66.186	0.506	0.461
10	말은 많이 하지 않고 신중히 꺼내도록 한다.	57.583	0.427	0.435
11	자신의 주장은 상대에게 분명히 말할수 있도록 가르친다.	61.672	0.488	0.423
12	다른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친다.	116.086	0.669	0.545
13	다른사람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태도를 가르친다.	93.919	0.602	0.526
14	전화를 예의바르게 받도록 가르친다.	84.026	0.570	0.486
15	이른시간과 늦은시간에는 다른 집에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한다.	69.306	0.517	0.464
◎16	양치질은 규칙적으로 하도록 한다.	84.863	0.571	0.463
◎17	옷을 단정하게 입도록 한다.	108.988	0.647	0.558
◎18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하도록 시킨다.(귀기후 손발 씻기등)	79.191	0.554	0.482
◎19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때까지 기다리도록 가르친다.	100.254	0.621	0.498
◎20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도록 한다.	93.201	0.602	0.457
◎21	식사가 먼저 끝나도 어른이 식사를 마칠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도록 한다.	74.266	0.539	0.437
◎22	식사시에 씹는 소리가 수저 부딪히는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가르친다.	91.609	0.595	0.524
◎23	식사 전에는 손을 씻도록 한다.	77.694	0.551	0.458
24	식사 전과 후에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란 인사를 시킨다.	99.143	0.622	0.535
25	반찬 투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111.521	0.656	0.539
26	편식을 하지 못하게 한다.	121.952	0.688	0.537
27	수저를 바르게 쥐도록 가르친다.(젓가락 사용법등)	87.565	0.583	0.508
28	다른사람과의 약속은 꼭 지키도록 한다.	101.025	0.626	0.493
29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준다.	99.700	0.620	0.528
30	일일(주간 또는 월간) 계획표등을 세워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75.268	0.540	0.470
31	외출할때는 행선지와 귀가시간을 알리도록 한다.	133.402	0.719	0.548
32	일기를 쓰도록 한다.	86.297	0.578	0.491
33	바른자세(보행자세, 책상에 앉는 법등)를 갖도록 가르친다.	117.148	0.673	0.552
34	항상 밝은 얼굴을 하도록 한다.	130.735	0.715	0.576
35	길에서는 음식을 먹으며 다니지 못하도록 한다.	71.147	0.528	0.468
36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84.804	0.574	0.463
◎37	자기 주변(책상정리, 본인 이부자리 개기 등)의 정리 정돈을 시킨다.	81.531	0.562	0.469
◎38	자기방 청소는 스스로 하도록 시킨다.	77.001	0.548	0.467
◎39	본인의 물건은 스스로 챙기도록 한다.(속제, 준비물, 입을 옷 등)	85.138	0.601	0.490
40	자녀가 할수 있는 것(식탁차리기, 신발정리, 실내화 빨기 등)으로 가사일을 분담시킨다.	79.133	0.553	0.436
◎41	자녀에게 부모의 종교를 따르도록 한다.	37.905	0.383	0.290
◎42	정기적으로 성당, 교회, 절 등에 나가도록 시킨다.	41.351	0.400	0.310
◎43	기도하는 습관과 방법을 가르쳐준다.	40.272	0.396	0.297
◎44	정기적으로 신앙 서적을 읽게 한다.	45.069	0.420	0.331
◎45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친다.	75.293	0.546	0.430
◎46	아버지는 엄격하여, 어려운 분으로 가르친다.	57.103	0.470	0.342
◎47	부모의 은혜를 알고 공경하도록 가르친다.	100.026	0.628	0.515
◎48	부모에게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시킨다.	107.030	0.644	0.531
◎49	부모의 외출 전후에는 인사를 시킨다.	103.031	0.636	0.517
50	부모 앞에서는 누워 있지 못하도록 한다.	56.953	0.471	0.404
51	본인의 요구를 들어 줄때마다 부모에게 감사의 인사를 시킨다.	97.343	0.617	0.558
52	부모의 일상사를 도와 드리도록 시킨다.(이부자리 깔기, 간식 챙기기등)	80.730	0.560	0.435
53	공부와 숙제는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한다.	111.498	0.656	0.515
◎54	자녀의 공책과 가방을 수시로 살핀다.	82.832	0.567	0.455
◎55	예습과 복습을 하도록 지도한다.	72.306	0.530	0.456
◎56	부모도 자녀와 함께 늘 공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81.717	0.563	0.470
◎57	책 읽는 습관을 길러준다.	101.654	0.628	0.517
◎58	책을 읽은 후에는 감상문을 쓰도록 지도한다.	65.006	0.502	0.423

〈표 3〉 계속

문항	문항내용	χ^2	Cramer V	상관관계
59	바른 글씨체를 갖도록 연습시킨다.	99.840	0.622	0.516
60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가르친다.	102.867	0.633	0.503
61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149.239	0.762	0.516
62	오락 및 비디오 게임을 금지시킨다.	51.512	0.446	0.355
63	건전한 오락활동은 권장한다.	69.150	0.517	0.411
64	여가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96.072	0.610	0.547
65	TV의 시청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보도록 한다.	110.560	0.656	0.534
66	한가지 이상의 특기 교육을 시킨다.	79.740	0.556	0.464
67	학과 보충의 과외 공부를 시킨다.	36.419	0.377	0.287
68	책과 자료를 찾는데 부모가 도움을 준다.(서점 함께 가기등)	58.547	0.476	0.393
69	자녀와 극장이나 음악회, 미술전 등의 문화행사에 참여한다.	76.410	0.545	0.470
70	자녀와 여행을 간다.	78.102	0.551	0.451
71	자녀와 운동을 함께한다.(악수터 가기 포함)	69.265	0.517	0.486
72	아버지의 일터에 자녀를 데려와 하는 일을 설명해 준다.	100.869	0.624	0.493
73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것을 강조한다.	77.813	0.549	0.449
74	남녀 구별없이 가르친다.	48.546	0.435	0.328
75	외박은 금지한다(잠자리가 일정해야 함을 가르친다.)	66.821	0.512	0.411
76	이성친구와의 전화 예절을 가르친다.	85.557	0.578	0.497
77	여성과 남성의 생리상의 차이점을 설명해 준다.	66.969	0.511	0.464
78	자녀의 생일 때는 동성, 이성의 친구도 초대하여 같이 놀도록 해준다.	68.976	0.518	0.424
79	임신과 출산의 원리에 관하여 설명해 준다.	55.182	0.463	0.434
80	이성친구를 사귄다는 부모에게 먼저 소개하도록 가르친다.	66.396	0.509	0.444
81	공부의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103.555	0.635	0.520
82	학교에 지각과 결석이 없도록 경계시킨다.	77.061	0.549	0.468
83	학교에서 보내오는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23.555	0.692	0.585
84	시험등의 바쁜시기에는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다.	42.555	0.407	0.300
85	화분 가꾸거나 금붕어, 애완동물을 기르게 한다.	62.600	0.495	0.394
86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킨다.	84.494	0.571	0.477
87	주말농장등에 데려가 자연속의 산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84.619	0.575	0.467
88	재활용품 사용하도록 가르친다.	105.263	0.638	0.550
89	부모를 떠나 혼자 생활해 볼 기회를 준다. (혼자 친척집이나 캠프보내기 등)	60.622	0.487	0.395
90	늦잠을 자도 깨워 주지 않는다.	37.842	0.384	0.204
91	한끼 식사는 스스로 마련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65.187	0.503	0.403
92	혼자 집을 지켜 볼 기회를 준다.	97.720	0.614	0.494
93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고 관리시킨다.(사용내역보고, 용돈 기록장기입등)	46.366	0.425	0.381
94	새물건을 사주기 보다는, 있는 물건을 잘 이용하도록 가르친다.	77.887	0.551	0.465
95	물건이나 옷은 손상되지 않는한 부모나 언니(형)에게 물려 받도록 한다.	75.059	0.540	0.461
96	절전과 절수를 생활화 시킨다.(수도 감기, 전등 끄기 지도)	113.036	0.664	0.562
97	학용품이나 액수가 작은 준비물 등은 스스로 구입해 보도록 한다.	114.296	0.668	0.561
98	물건을 살때 미리 계획하여 꼭 필요한 물건만 사도록 한다.	97.932	0.619	0.562
99	물건의 필요양이나 유행보다는 실용적인 물건을 고르도록 가르친다.	109.187	0.652	0.531
100	지속의 습관을 길러준다.	111.813	0.662	0.527
101	돈과 물건의 소중함을 일깨워줘야 하도록 가르친다.	105.103	0.639	0.497
102	용돈은 일한 댓가로만 준다.	48.231	0.434	0.372
103	다른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않도록 가르친다.	76.077	0.545	0.394
104	다른사람의 물건도 소중함을 가르친다.	107.331	0.648	0.497
105	내물건이 아닌 것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101.003	0.627	0.472
106	사고있는 것을 모두 살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친다.	95.608	0.611	0.501
107	나의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기쁨을 일깨워 준다.	97.612	0.619	0.538
108	빌린 물건은 주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가르친다.	104.967	0.640	0.518
109	환경오염물건의 사용을 제한한다(일회용품 사용등)	115.345	0.671	0.590
110	가운을 일깨워 잘지도록 가르친다.	126.041	0.700	0.592
111	집안 어른(조부모등)의 존함을 가르치고, 바르게 말하도록 가르친다.	123.157	0.694	0.581
112	어른의 생일과 식구의 생일을 잊지않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도록 한다.	100.772	0.626	0.531
113	맛있는 것은 먼저 어른께 권하도록 가르친다.	99.800	0.624	0.491
114	집안의 여러행사(제사, 결혼식등)에 자녀를 참여시킨다.	68.225	0.517	0.417
115	자녀의 입학, 졸업, 생일등의 행사가 있을 때 전가족이 축하해준다.	116.138	0.675	0.546
116	친인척의 손수를 가르친다.	104.731	0.642	0.558
117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도록 시킨다.	106.403	0.649	0.544
118	다른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자녀가 잘못해도 꾸짖지 않는다.	44.254	0.417	0.230
119	하루의 한끼라도 가족 모두와 식사하도록 한다.	101.248	0.628	0.495
120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은 집임을 일깨워 준다.	105.343	0.643	0.532
121	가족의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만든다.	100.578	0.627	0.530

〈표 3〉 계속

문항	문항내용	χ^2	Cramer V	상관관계
122	가족과 공동의 취미 활동을 권장한다.	80.256	0.560	0.453
123	형제자매간의 우애관계를 강조한다.	95.224	0.610	0.465
124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도록 한다.	107.707	0.650	0.535
125	좋은 친구를 선택하도록 한다.	76.396	0.542	0.376
⊙126	친구와 다투었을때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도록 가르친다.	88.078	0.582	0.537
127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가르친다(지도자 되기).	85.254	0.574	0.434
⊙128	친구와의 우정은 소중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134.938	0.723	0.613
129	본인 행동에 책임감을 지니도록 가르친다.	122.057	0.686	0.536
⊙130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르친다.	103.731	0.633	0.567
⊙131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가르친다.	119.914	0.683	0.564
132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가르친다.	130.509	0.710	0.559
⊙133	친구가 없는 곳에서 흥보지 못하도록 한다.	109.008	0.649	0.557
⊙134	친구를 앞에서는 겸손하게 행동하도록 가르친다.	122.938	0.689	0.591
135	친구를 차별하지않고 공평히 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107.882	0.645	0.570
136	어려서부터 한국인의 긍지와 애국심을 갖도록 한다.	103.934	0.633	0.512
137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미워하도록 한다.			
138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126.808	0.701	0.521
139	옳다고 생각한 것은 끝까지 굽히지 않도록 가르친다.	95.116	0.608	0.457
140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68.205	0.514	0.356
141	미래에 대한 포부와 목표의식을 갖도록 한다.	87.170	0.584	0.451
142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못하도록 한다.(소란스럽게 떠드는 행동 등)	89.433	0.591	0.429
143		96.676	0.613	0.535
⊙143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한다.	101.405	0.631	0.530
144	이웃나라와 운동경기를 보게하고, 응원하게 한다.	97.160	0.618	0.535
145	국경일에 관하여 설명해 준다.	120.012	0.686	0.571
⊙146	국경일에는 자녀에게 국기를 게양시킨다.	96.581	0.618	0.527
147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시킨다.	148.928	0.764	0.601
148	차가 잘다니는 위험장소에서는 놀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102.290	0.630	0.498
149	한국적인 음식으로 식단을 마련한다.	64.089	0.499	0.370
⊙150	공공시설물을 본인의 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하도록 한다.	115.963	0.672	0.578
151	의식, 행동이 서구화 되어도 한국적인 것이 중심이되게 한다.	109.566	0.652	0.542
152	강한 인내심과 참을성을 갖도록 한다.	144.145	0.747	0.590
153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르친다.	126.179	0.701	0.588
⊙154	한국의 위인전기나 역사책을 많이 읽게 한다.	128.390	0.707	0.607
⊙155	다른나라의 문물을 많이 접해보도록 배려한다.(책,TV,여행등을 통해)	99.027	0.621	0.520
⊙156	개개인의 가치나 선호를 인정하도록 가르친다.	118.954	0.679	0.598
⊙157	손해를 보더라도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야한다고 가르친다.	117.410	0.676	0.542
⊙158	사회에는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음을 가르친다.	154.807	0.775	0.626
⊙159	나보다는 다른사람을 먼저 배려하도록 가르친다.	107.898	0.648	0.570
160	부모에게는 존대어를 사용하도록 가르친다.	73.718	0.537	0.453
⊙161	본인의 일은 스스로 시작하고 마무리짓도록 가르친다.	140.061	0.740	0.602
⊙162	매사에 긍정적 태도를 지니도록 가르친다.	103.988	0.636	0.559
⊙163	단체생활에서는 협동심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138.726	0.735	0.631
⊙164	어려운 친구를 스스로 돕도록 권장한다.	125.121	0.699	0.624
⊙165	공중목욕탕에서 다른사람에게 물이 튀지않도록 조심시킨다.	111.603	0.662	0.595
166	버스나 지하철을 탈때, 또는 슈퍼의 계산대 앞에서는 차해를 지킴도록 한다.	139.204	0.736	0.611
⊙167	관공서나 은행등에 함께 데려가서 할수있는 일을 시켜본다.	110.260	0.656	0.566
⊙168	창의적인 사고를 강조한다.	124.415	0.696	0.614
⊙169	집안에 내려오는 물건이나 이야기를 전하여 집안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가르친다.	111.706	0.662	0.582
⊙170	조상의 산소에 데려가서, 조상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99.213	0.624	0.541
⊙171	축보를 설명해 준다.	110.139	0.657	0.559
⊙172	가족내의 윗분과 아랫사람의 상하질서를 강조한다.(예,형과 아우간)	138.391	0.735	0.613
⊙173	전통놀이를 배우도록 가르친다.(재기차기,널뛰기,공기놀이등)	75.523	0.542	0.487
⊙174	태극기를 그릴줄 알도록 한다.	111.718	0.662	0.558
⊙175	애국기를 4절까지 부를수 있도록 한다.	104.906	0.640	0.532
176	성실하게 노력하는 삶이 값진 인생임을 가르친다.	116.006	0.674	0.530
⊙177	이웃과 친숙하게 지내도록 가르친다.(음식나누어먹기, 인사하기 등)	120.858	0.688	0.598
178	교통신호에 따라 건널목을 건너도록 가르친다.	89.968	0.595	0.443
179	부모에게 하루일과를 보고하고, 상의하도록 한다.	75.216	0.541	0.501

용되는 기준은 고유치(eigenvalue) 1.0이상의 기준이다. 그런데 변수의 수(질문지 문항수)가 40개 이상일 때 이 기준이 적용되면 그 결과가 매우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Cattell(1966)이 제안한 스크리 검정(scree test) 결과와 총분산의 75% 이상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요인의 수를 확보하는 기준을 혼용하기로 했다. 즉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의 수는 24개였으나, 스크리검정 결과 고유치가 수평으로 변하는 지점은 12개 요인부터였다. 그러나 12개 요인은 총분산의 75%에 못 미쳤으며, 이론적인 내용 구조상 13~15 요인의 문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정에 의해 15개 요인의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일정한 법칙은 없으나 Gilford(1952, 이영준 1993 재인용)는 요인의 수가 최대 15개까지는 무난하다고 했다. 또 요인분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원상관행렬을 축소하여 요인분석하는 것임) 고차 요인으로 요인을 확정하면 요인 수는 줄일 수 있으나, 고차 요인으로 갈수록 원래의 측정 변수에 대한 관계가 덜 정확해 진다는 견해(이순목, 1995)가 있다. 또 한국적인 가정교육의 특색을 나타내 주는(孝를 포함한 전통 윤리 존중) 13~15개 요인은 이론적 견지에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이 척도 구성에 있으므로, 15개 요인 방안은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변수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정된 15개의 최종 요인은 총 분산의 71.8%를 설명하고 있다(표 6 참조).

각 요인의 해석에 사용될 최종문항의 선택은 몇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첫째, 일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요인부하량 .30 이상이 되는 변수들을 선택한다는 기준이다(이영준, 1993). 각변수가 해당요인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형태계수행렬표²⁾에서 살펴보면, .30에 못미치는 문항은 154, 87, 108, 117, 97, 98, 76, 173, 6, 48번의 10개 문항이다. 그러나 요인들과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구조계수행렬표³⁾에서 살펴보면(표 4 참조), 이들 10개의 요인간 상관계수는 .35-.5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최종 문항선택에서 이들 문항을 제외시키지 않았다. 둘째, 각 변수의 공통분(communality)이 낮은 문항은 제외시킨다(이순목, 1995)는 기준이다. 첫번째 기준에서 문제성이 보였던 문항의 공통분이 모두 .60이상이므로(표 4), 이들 문항을 요인 설명을 위한 최종문항으로 선택해도 무리가 없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2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구조계수행렬표(표 4)에서 각 요인으로 묶인 문항 모두를 요인 해석을 위한 최종문항으로 선택했다. 단 요인 1에 묶인 문항중 167번 문항은 3번째 요인의 해석에, 그리고 154, 155번 문항은 요인 7의 해석으로, 또 172번 문항은 요인 11의 해석으로 내용상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요인 9의 117번 문항은 요인 11의 해석으로 역시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 문항은 각각 요인 3과 요인 7 및 요인 11의 해석문항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요인에 관한 명명을 시도했다.

즉, 첫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38.7%를 설명하며 인생에 관한 가치관 및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 그리고 공중도덕준수등과 관련된 문항에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치 및 사회관계교육」이라고 명명했다. 두번째 요인은 용의 단정과 청결을 중심으로 한 「기본 생활 습관의 훈련 교육」, 세번째 요인은 부모와 자녀가 여행, 운동 또는 문화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문항에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생활문화 유지 교육」으로, 네번째 요인은 「종교 생활 교육」, 다섯번째 요인은 「학습 지도 교육」이라고 명명했다. 여섯번째 요인은 소위 의식과 관련한 「경제생활 교육」, 일곱번째 교육은 「나라 의식 교육」, 여덟번째 교육은 간단한 주변정돈을 자녀 스스로 하게하는 문항에 높은 부하량을

2) 직교회전과는 달리 사각회전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엔, 표준화된 선형 가중치를 보여주는 형태계수행렬과 각 요인들과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주는 구조계수 행렬이 같을 수 없다. 따라서 두가지 행렬을 모두 보고해야 하나, 지면이 허락하지 못할 경우엔 보통 형태계수행렬은 생략한다. 이는 형태계수행렬을 보고하지 않아도 구조계수행렬=(형태계수행렬)×(요인상관행렬) 이므로 구조계수 및 요인상관 행렬만 있어도 형태계수 행렬은 간단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순목, 1995).

<표 4> 회전후(Promax Rotation) 요인구조(Factor Structure(Correlations))

요인 수=15, n=518

	Fact1	Fact2	Fact3	Fact4	Fact5	Fact6	Fact7	Fact8	Fact9	Fact10	Fact11	Fact12	Fact13	Fact14	Fact15	R ²
X162	74	33	26	18	32	34	27	32	27	17	26	22	23	18	23	75
X157	64	31	18	15	27	29	29	26	20	24	31	16	40	13	29	72
X159	68	26	6	18	25	32	39	29	26	9	34	14	29	9	26	62
X164	71	41	21	21	27	29	34	26	25	5	35	14	37	16	20	72
X158	66	35	13	13	29	35	33	25	22	19	40	19	50	19	44	75
X163	70	36	18	12	34	39	36	39	26	13	35	14	38	11	29	70
X130	66	27	27	24	31	41	27	23	23	21	37	28	20	9	19	73
X133	64	25	17	12	31	48	27	35	18	6	33	20	24	14	17	68
X156	70	36	34	15	42	28	43	27	30	16	37	24	34	11	34	70
X161	64	42	15	5	31	39	28	44	20	30	42	19	29	18	28	70
X168	72	26	32	17	41	31	47	33	25	15	30	21	39	9	33	75
X177	63	37	14	12	25	35	39	37	19	18	33	15	28	13	23	68
X150	59	37	6	15	25	39	39	27	21	24	32	14	34	19	28	73
X128	61	33	15	14	37	41	26	28	10	15	47	21	33	22	24	69
X131	56	27	27	29	46	38	33	28	28	14	22	18	19	26	29	72
X134	63	31	23	14	38	28	32	35	20	12	38	24	25	4	28	69
X155	56	25	46	7	32	18	40	22	26	16	29	19	35	6	24	70
X172	58	22	9	8	23	36	39	31	28	16	44	17	56	16	41	74
X165	59	36	6	23	26	32	42	27	30	11	38	6	37	5	32	67
X126	56	29	13	13	32	39	24	31	9	11	34	21	23	17	18	65
X167	61	39	18	9	29	24	39	28	22	8	37	13	35	6	23	68
X154	53	33	27	11	47	36	49	38	27	7	33	12	42	19	34	66
X16	28	76	7	12	26	22	22	30	28	6	24	8	17	15	28	68
X18	36	72	10	12	27	29	18	37	27	9	27	12	15	18	29	66
X23	37	61	-2	16	32	29	26	42	32	1	28	2	11	12	28	65
X17	41	72	0	13	27	35	19	43	31	7	38	13	22	19	35	72
X70	44	20	68	6	25	20	22	20	14	10	31	20	23	6	13	71
X71	39	23	67	12	36	16	32	22	11	4	32	30	26	6	21	73
X69	33	18	61	11	46	14	31	29	25	2	26	39	26	2	20	69
X68	24	17	46	18	48	24	32	16	29	0	19	31	22	6	20	62
X72	37	29	44	22	35	13	32	32	26	1	29	35	32	7	21	60
X87	31	21	36	13	43	21	32	21	18	2	34	36	31	-1	22	64
X42	17	16	10	91	20	18	15	5	18	-12	11	11	0	6	19	88
X43	19	13	10	92	25	13	19	11	17	-13	8	16	-3	8	17	88
X44	21	14	14	84	30	16	17	16	20	-10	9	14	-1	1	18	81
X41	15	18	7	80	17	18	13	7	26	-2	10	12	10	4	19	74
X55	26	33	6	16	68	22	27	35	24	6	29	10	22	6	34	66
X56	32	26	34	23	69	19	35	25	35	-7	18	32	25	6	26	68
X58	26	18	19	10	61	10	39	26	22	3	20	31	29	-5	30	70
X81	36	39	14	17	58	34	25	37	17	20	35	15	22	30	34	67
X57	41	36	29	16	61	29	36	42	21	9	15	20	29	24	47	67
X59	40	35	12	9	56	30	36	31	16	-1	28	17	28	13	40	65
X54	27	33	12	14	49	28	22	24	14	-2	37	14	15	5	25	57
X103	37	29	1	10	14	70	18	20	11	20	21	3	17	20	21	66
X104	50	30	3	12	24	78	17	28	8	22	34	13	20	22	22	78
X105	36	28	-2	18	20	71	20	13	8	13	40	2	24	25	26	67
X108	46	28	-1	11	17	59	21	24	4	21	44	-3	27	19	21	66
X174	41	28	12	6	35	28	71	26	23	9	40	21	43	10	37	74
X175	40	36	12	15	34	21	73	24	24	10	34	22	42	4	29	73
X146	36	20	17	13	36	19	67	22	33	2	40	28	43	19	31	71
X143	46	19	24	41	38	28	61	22	30	5	32	31	31	11	31	72
X38	33	34	4	10	32	26	23	79	21	11	30	11	19	5	26	77
X37	38	42	4	6	29	22	19	77	25	15	26	10	23	12	29	70
X39	39	44	3	4	30	33	17	68	12	13	29	12	17	12	39	71
X21	27	32	6	16	28	17	25	24	73	3	28	8	20	15	28	70
X19	29	41	6	16	30	23	24	27	69	8	32	8	34	23	40	70
X22	31	46	-2	21	32	25	28	34	59	0	40	4	23	1	29	71
X20	30	51	-7	1	21	22	15	40	47	18	30	-4	30	15	34	66
X117	34	24	14	14	49	38	51	19	42	4	45	21	39	14	37	65
X94	33	27	5	2	27	34	22	27	16	66	34	9	21	10	27	69
X95	32	30	9	5	13	25	20	25	20	62	35	14	25	8	23	69
X96	35	41	2	5	25	39	29	24	15	48	49	12	34	25	33	70
X97	48	43	10	5	27	42	21	29	16	42	43	8	27	21	21	65
X98	41	38	7	7	43	40	34	27	13	38	41	17	32	8	23	69
X114	30	15	18	3	16	28	23	15	19	18	68	17	34	12	17	65
X115	40	26	21	13	29	29	37	22	17	11	70	17	35	6	32	72
X112	34	29	27	9	34	18	43	16	33	9	62	31	36	7	29	70
X113	38	23	14	18	29	34	30	16	31	31	53	18	20	18	21	66
X116	36	19	10	7	37	43	47	20	20	9	64	19	43	8	30	69
X79	31	18	26	19	33	14	35	19	17	5	26	75	24	-3	18	70
X77	29	20	22	13	32	24	36	21	22	2	34	70	26	7	21	71
X80	32	28	22	11	29	23	27	27	14	19	32	54	17	17	23	61
X76	37	16	11	10	36	20	31	27	22	-2	39	38	16	-6	23	64
X171	44	22	19	8	39	21	51	22	28	6	43	26	77	6	31	78
X170	47	21	21	1	30	29	44	23	24	5	42	11	70	9	25	72
X169	58	26	24	13	38	24	48	29	33	14	31	25	61	8	25	73
X110	33	34	17	18	48	28	45	20	34	7	41	27	57	7	40	71
X173	43	18	28	7	32	21	46	21	28	6	31	28	35	3	16	63
X1	27	25	2	8	12	27	12	19	23	6	25	7	16	66	21	68
X2	23	29	0	9	13	26	12	16	19	7	22	-3	18	68	26	62
X4	29	33	2	8	19	16	19	17	31	0	30	7	17	43	31	63
X6	21	38	-1	4	8	22	5	27	25	4	31	-8	15	37	30	56
X49	34	36	9	12	34	29	26	34	30	12	37	15	20	19	67	65
X45	22	28	-2	10	25	20	23	21	25	9	21	8	21	14	66	60
X47	35	39	13	11	31	28	30	33	30	13	30	9	30	17	61	57
X46	9	28	1	18	33	20	16	19	28	6	25	-8	14	18	49	64
X48	32	29	19	26	40	24	30	28	41	5	39	13	22	16	50	66

나타내어 「생활적 자립교육」으로 명명했다. 아홉번째 요인은 「식사 예절 교육」, 열번째 요인은 근검절약과 관련된 「물자 관리 교육」으로 명명했다. 열한번째 요인은 가족의 상호 공유성과 관련된 문항에 높은 부하량이 나타나 「가족 공동체 유지 교육」으로, 열두번째 요인은 바른 성의 인식과 이성 친구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성과 이성친구 관계 교육」으로 명명했다. 열세번째 교육은 조상과 전통 윤리의 존중과 관련된 문항들로 묶여 「전통생활 존중 교육」, 열네번째 요인은 웃어른에 대한 예의 준수와 관련된 「상하 질서 교육」, 열 다섯번째 요인은 부모에 대한 공경과 관련된 「부모 공경 교육」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계 경제생활에 관한 교육뿐 아니라 물자 관리에 관한 교육을 동시에 시킨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자녀에게 비용을 지불케하는 행위를 시킨다면, 數와 관련된 학습 지도 교육을, 상인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대인관계를 맺는 사회 관계 교육을 동시에 행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가정교육이 자연스러운 생활의 행위로 교수되는 생활 교육으로, 생활은 상호 관련된 다면적 구조를 특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요인회전시 요인간 상관관계를 가정하는 사각회전의 방법을 적용한 이유, 통계적으로 각 요인간 상관치가 높았던 이유(표 5), 그리고 각 변수(문항)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이유(표 4)등이 모두 이러한 이론적 견해 때문이다. 따라서 사각회전의 방법이 사용된 경우엔 변수

〈표 5〉 요인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00														
2	0.40	1.00													
3	0.26	0.07	1.00												
4	0.18	0.17	0.12	1.00											
5	0.40	0.31	0.32	0.23	1.00										
6	0.45	0.31	0.00	0.18	0.30	1.00									
7	0.43	0.24	0.22	0.20	0.47	0.26	1.00								
8	0.43	0.44	0.15	0.08	0.40	0.30	0.20	1.00							
9	0.25	0.33	0.13	0.24	0.27	0.14	0.38	0.22	1.00						
10	0.18	0.17	0.05	-0.11	0.04	0.17	0.05	0.17	0.00	1.00					
11	0.38	0.33	0.08	0.08	0.31	0.40	0.33	0.22	0.21	0.14	1.00				
12	0.22	0.05	0.35	0.12	0.32	0.06	0.29	0.14	0.14	0.05	0.18	1.00			
13	0.34	0.29	0.12	0.02	0.25	0.18	0.45	0.16	0.34	0.13	0.37	0.17	1.00		
14	0.18	0.18	0.05	0.06	0.10	0.26	0.10	0.10	0.16	0.13	0.11	-0.01	0.10	1.00	
15	0.30	0.35	0.03	0.17	0.42	0.29	0.38	0.33	0.35	0.13	0.31	0.08	0.37	0.25	1.00

한편, 가정 교육 내용의 요인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들 각 요인이 서로간에 상관관계를 강하게 갖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장에 가서 자녀와 장을 볼 때, 부모는 자녀에

들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구조계수 행렬(표4)을 보여주어야 하며, 각 요인이 독자적으로 설명하는 분산과 모든 다른 요인과 관련되어 설명해 주는 공유분산을 따로 산출해서 보고(표 6)해야 하는 것이

〈표 6〉 요인 분산 퍼센트

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독자분산	3.88	1.17	1.36	2.25	1.27	1.12	1.13	1.20	1.10	1.17	1.06	1.13	1.09	1.08	1.10
합성분산	30.03	19.42	6.39	6.74	18.66	16.57	17.31	14.67	11.37	4.54	20.22	6.96	14.99	4.74	15.49
공유분산	26.15	18.25	5.03	4.49	17.39	15.45	16.18	13.47	10.27	3.37	19.16	5.83	13.9	3.66	14.39
공유분산(%)	30.86	21.54	5.94	5.30	20.52	18.23	19.10	15.90	12.12	3.98	22.61	6.88	16.41	4.32	16.98
고유치	46.10	6.04	5.43	3.65	3.21	3.17	2.80	2.37	2.05	1.83	1.81	1.68	1.62	1.51	1.46
누적분산비율	38.73	43.80	48.36	51.43	54.13	56.79	59.15	61.14	62.86	64.40	65.91	67.33	68.69	69.95	71.18
독자분산(%)	4.58	1.38	1.61	2.66	1.50	1.32	1.33	1.42	1.30	1.38	1.25	1.33	1.28	1.27	1.30

다(이순목, 1995).

한편, 척도구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척도를 통해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다소 축소된 척도가 유용할 때가 있다. 이처럼 적은 수의 좋은 문항을 고르고자 할 때 회귀분석의 방법이 사용된다(홍두승, 1987). 그러나 본 연구는 척도구성 자체가 목적이며, 또 이러한 단단계 회귀분석의 적용 결과가 요인분석에서 요인부하량(형태계수 기준임)이 0.4이상인 문항만을 최종 문항으로 채택한 결과와 대동소이하므로, 회귀분석의 결과 보고를 생략하기로 했다.

3. 신뢰도

요인분석으로 타당성을 검증하는 척도의 신뢰도는 보통 Cronbach의 계수(α)를 산출함으로써 검증한다(이영준, 1993). 본 '가정교육의 내용'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계수 .96으로 각 하위 요인별로는 .74~.94의 범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Price와 Mueller(1986)가 제시한(송순, 1994에서 재인용) .60이상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킴으로써 그 신뢰도가 검증되었다(표 7).

IV. 요약과 논의

본 연구는 현대의 한국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쳐야 할 '가정교육의 내용'을 추출해 내어 척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학교나 사회가 아닌 가정을 그 장소로 하여 펼쳐지는 교육이라면 '적어도 이런 내용만'은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흔히 '가정교육이 잘 됐다' 아니면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다'라는 일반적인 평가를 한다. 그런데 가정교육이 무엇이며, 도대체 어디까지가 학교나 사회가 아닌 가정이 맡아 교육시켜야 하는 범위이며,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합의된 체계적인 기준이 없다. 따라서 각 가정의 부모는 자신이 제대로 가정교육을 잘 시키는지(수행 여부), 아니면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에 관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삶의 기준 마련이 용이치 못한 다양한 가치의 현대 사

〈표 7〉 Cronbach 알파(α)

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전체
α	0.94	0.81	0.82	0.92	0.81	0.83	0.80	0.81	0.79	0.82	0.79	0.76	0.82	0.74	0.74	0.96

회에서, 또 서구식의 허용적 육아법이 쏟아져 들어오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가정교육의 내용(What)을 어떤 방법(How)에 기준하여 실행해야 하는지 점점 더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생활 교육이라는 특성(상호 관련된 광범위한 다면적 구조를 가진)의 가정교육을 보다 체계적인 영역으로 구조화시키는 데 그 첫번째의 목적을 두었다. 또 구조화된 ‘가정교육의 내용’을 가정교육의 수행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일반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과거 전통 가정 및 현대 가정의 교육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선행 연구자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집하여 그 결과를 12개 영역의 가설적 구조로 설정하였다. 둘째, ‘현대 한국 가정에서 꼭 가르쳐야 할 가정교육의 내용’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집을 위해 학부모 192명의 의견을 면접에 의한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셋째, 1,2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척도화 할 수 있는 문항을 작성한 후 가정교육의 전문가 7인의 의견을 재 수렴하였다. 넷째, 앞의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척도 문항(179문항)을 일반화시키기 위해 예비 조사를 거친 대단위 실증 조사를 실시했다(518명의 학부모 대상). 조사 결과는 문항 양호도 검증은 거쳐, 요인분석에 의한 타당도 검증이 실시됐다. 그 결과 15개 요인에 의한 87문항이 최종 문항으로 선정됐고, Cronbach의 계수 .96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확정된 척도는 몇 가지 점에서 그 제한점이 있다.

첫째, 될 수 있으면 광범위한 일반인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보편적인 척도로 구성하려는 의도 때문에, 다양한 아동관이 혼재되어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어떠한 아동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교육내용과 방법이 달라지게 되므로, 본척도의 내용구성에서는 서로 이질적인 내용과 방법이 혼용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본 척도가 가지는 제한점일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아동관(그에 따른 교육관)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증거가 아직 없으며(Salkind, 1981), 각각의 아동관을 신봉하는 전

문가들조차도 다른 아동관이 가지는 장점과 교육방법을 간과하지 못했다(현은자, 1994).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중용적 아동관과 중용적 교육방법(엄격함과 자상함을 동시에 가짐)을 지향하는 본 척도의 내용 구성은 오히려 본 척도가 가지는 특성이나 장점으로 지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둘째, 실증 조사의 조사 대상에 상하류 계층이 소수였고, 서울 시내 거주자에 한했고, 국민학교 아동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로 국한했다는 점이다. 만일, 중류가 아니며, 유아나 사춘기 또는 성년기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본 척도에서 확정된 문항 이외의 것들이 가정교육의 내용으로서 추가되거나 누락될 수 있음을 밝힌다.

셋째, 생명 존중과 관련된 전통 사회의 合自然的 인간관(유혜령, 1994)에 대한 최근의 새로운 평가(환경 보호, 지구 보호 등)와 관련하여 다수의 문항을 환경 교육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척도 문항에 포함시켰다. 면접 조사는 몇몇 학부모가 환경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주장했으나, 대단위 실증 조사 결과에서는 이들 문항이 요인분석 과정에서 모두 누락되었다. 환경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한국의 부모들의 일반적 인식이 아직까지는 낮게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본 척도와 관련한 척도 개정에서는 환경 교육과 관련된 척도 문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척도가 좀더 개선될 기회가 있다면, 최종 문항의 선택에서 지적인 문항들(요인부하량이 .30이하이거나, 공통분의 설명력이 낮았던 문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개정되어야 할 것을 지적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척도를 사용하여 다른 변인(예, 교육 수행에 따른 아동 발달 정도 등)과의 관련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은 더 적은 수의 요인이나 문항으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요인분석으로 확정된 최종 문항들에 대하여 요인별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면 R^2 의 변화에 따른 보다 축소된 문항의 척도로 재구성 할 수 있다. 또 통계상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됐으나, 이론상 또는 통계상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들을(예를 들어 요인 2의 기본 생활 습관의 훈련 교육과 요인 9의 식

사 예절 교육은 하나의 고차 요인으로 묶일 수 있다) 1개의 고차 요인으로 통합하여 타 변인과의 관계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추후의 과제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지적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는 전통 사회의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 현대의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는 실태 분석 또는 내용 분석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본 연구의 척도화 작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가정교육 내용에 관한 척도화를 시도한 효시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추리통계 기법이 적용된 척도화 작업은 가정교육이라는 변인이 막연한 일반의 평가에 의해서 뿐 아니라 과학적인 수준에서 계량적으로 다루어져, 그의 교육적 효과가 검증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정교육의 역할 또는 그 효과성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자 하는 추후 연구에 유용한 척도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 가정교육에 관한 내용(What)과 방법(How)에 관한 과학적 정보(기준, 지침 또는 방침)를 원하는 중류 계층의 부모들에게 그 해답이 되어 줄 수 있는 실용적 성과도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강지원(1995), 건전가정 30훈, 기린원
- 2) 김두선(1994), 국제화 시대의 가정교육- 부모가 곧 아야 자녀도 곧다, 집문당
- 3) 김순옥(1988), 부모 자녀간의 응집성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사회과학 28권 1호, 성대 사회과 학연구소, 115-131
- 4) 김옥희(1986), 조선조 사회의 女四書를 중심한 여성 교훈서의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 논문
- 5) 김재은(1993), 가정교육 이렇게 하세요, 샘터 유아교육신서 32, 샘터
- 6) 김천일(1973), 교육원리, 학문사
- 7) 김형배(1985),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서울 시내 고교생 가정을 중심으로-, 성대 석사학위논문
- 8) 남광우·전광용·이용백·유창돈(1969), 명문국어 대사전, 명문당
- 9) 동아출판사(1995), 동아 새국어 사전
- 10) 박병주(1983), 가정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11) 방현덕(1993), 가정교육론, 바울서신사
- 12) 손인수(1992), 한국인의 가정교육, 문음사
- 13) 손직수(1981), 조선시대 여성교훈서에 관한 연구, 성대 박사학위 논문
- 14) 손직수(1988), 핵가족시대에 있어서 가정교육의 과제, 인문과학 17집, 성대 인문과학 연구소, 75-102.
- 15) 손직수의 3인(1994), 한국인의 전통 가정교육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6) 신연식(1985), 사랑과 자녀교육, 부모교육전서 3, 학문사
- 17) 송성자(1989),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홍익재,
- 18) 송순(1995),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권 1호, 49-61
- 19) 우영희(1989), 조선시대 교훈서를 통해 본 자녀양육-「童蒙先習」,「擊蒙要訣」, 사소절, 「顧菴家訓」을 중심으로-, 중대 박사학위논문
- 2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92), 미래를 향한 가정교육, 양서원
- 21) 유아교육연구회(1993), 지혜로운 자녀교육, 학문사
- 22) 유영주(1985),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 23) 유영주(1989), 한국가족의 대내적 기능 연구-가족의 기능요인 및 수행도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 24) 유영주·어은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권 1호, 145-156
- 25) 유점숙(1991), 조선후기 童蒙교재의 내용분석,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26) 유혜령의 3인(1994), 한국인의 전통 가정교육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27) 윤명선(1990), 사회교육으로서의 부모교육 Program 개발에 관한 연구, 성대 석사학위논문
- 28) 이계학의 3인(1994),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 29) 이길표의 2인(1993),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 한 가사관과 오늘날의 가사분담 및 가사작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미래 가정경영의 주체가 될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연구 7집, 성신여대 생활문화연구소
- 30) 이민언(1993), 가정교육과 학교생활 태도의 상관성 연구, 연대 박사학위 논문
- 31) 이순목(1995), 요인분석, 학지사
- 32) 이영미(1989), 조선조 여성의 가정교육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규범류에 나타난 여성교육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33) 이영준(1993), SPSS/PC+를 이용한 다변량분석, 석정
- 34) 이원영, 박찬옥, 노영희(1991), 유치원의 기본생활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부
- 35) 장현섭(1995),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 36) 장휘숙(1992), 아동심리학, 박영사
- 37) 조경애(1988),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자녀의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38) 조선일보사회부(1994), 가정교육- 버릇·생활용구·가정환경, 우석
- 39) 조순만(1993), 평생교육체제에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성 탐색,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 40) 지영숙(1987), 정약용의 가정교육관에 관한 연구, 중대 박사학위논문
- 41) 지영숙(1990), 가정교육의 현대적 과제(제 1보), 인문과학 20집, 성대 인문과학연구소, 151-171.
- 42) 지영숙(1992), 가정교육의 현대적 과제(제 2보), 上揭書 22집, 91-103.
- 43)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3),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콜로키움 및 세미나 자료모음-
- 44)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5), 1994년도 부모교육학술 세미나 종합보고서
- 45) 현은자(1994), 어머니의 양육과 타인의 양육, 서원
- 46) 홍달아기(1993), 울곡의 가정교육관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47) 홍두승(1987),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 48) Kim & Mueller(1978), Factor Analysis, SAGE 14
- 49) McIver & Carmines(1981), Unidimensional Scaling, SAGE 24
- 50) Salkind(1981),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N.Y., John Wiley & Sons, Inc
- 51) Stinnett & Kaye(1984), Relationships in marriage and the family, Macmillan Publishing Co.
- 52) 牧野カツコ(1992), 現代家族の危機, 東京, 有斐閣